



까막눈 엄마 순옥이 아들을 위해 뒤늦게 글을 배워 탄원서를 쓰고 있다.

사형수 아들과 까막눈 어머니

김해숙·손호준의 진정성 있는 모자 연기
가족 소중한 담은 영화...오는 18일 개봉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섬에 사는 기강(손호준). 만날 사고만 치면 그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라는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도 모르게 가슴에 새긴다. 성공을 꿈꾸던 기강은 엄마 통장을 훔쳐 친구와 상경한다. 뒷꿈목을 전전하며 범죄를 일삼던 기강은 ‘한방’을 노리고 대담한 범죄에 가담하고, 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당시는 정부가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서술이 퍼렇던 시대. 아들의 목숨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까막눈’ 엄마 순옥(김해숙)은 뒤늦게 글을 배워 탄원서를 쓴다. 오는 18일 개봉하는 영화 ‘크게 될 놈’은 사형수가 된 아들과 아들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쓰는 엄마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 자체는 전형적이고 울드한 편이다. 그런데도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는 어머니와 그런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화혼은 여지없이 눈물샘을 자극한다. 특히 순옥이 “제가 죄인입니다”라며 땀뻘뻘한 글씨로 탄원서를 써 내려갈 때,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하고 미워해도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 엄마니까...”라고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절절한 모성애가 전해져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감지은 감독은 10일 시사회 이후 간

담회에서 “쉬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구로 치면 돌직구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모자로 나온 김해숙과 손호준,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스크린 밖으로 전해진다. ‘국민엄마’ 김해숙의 연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살기도 힘들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이 영화를 보고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손호준은 사고공치 아들부터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심정, 부모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같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몰입감 있게 소화해냈다. 손호준은 “엄마와 아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와닿았다”면서 “어떤 작품보다 몰입과 집중을 해서 연기했다”고 떠올렸다. /연합뉴스

JTBC, B급 뉴스예능 ‘뉴스페이스’ 론칭

프리 선인 장성규 아나운서 진행

JTBC가 아나운서 장성규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뉴스페이스’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뉴스페이스는 뉴스에 예능을 접목한 ‘B급 뉴스쇼’를 표방한다. 25~34세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표현 대신 소통하는 재미를 살리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주로 다룬다. 진행은 최근 JTBC를 떠나 프리랜서를 선언한 장성규 아나운서가 담당한다. 지난 3월 5일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해 4회 파일럿 분량을 마쳤으며, 4월 정식으로 맞을 올렸다. ‘뉴스페이스’는 매주 화요일 오

후 9시 20분 생방송을 진행하며 추후 트위치, 페이스북 등으로도 생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NCT127 남미·유럽 진출

그룹 NCT127이 월드투어 반경을 남미와 유럽으로 넓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NCT 127이 오는 5월 2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테아트르 메트로폴리탄, 6월 2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팰리스, 6월 29일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스 포츠스포츠 팰리스에서 ‘네오 시티-디 오리진’ 공연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SM은 “이번 NCT127 콘서트는 감각적인 음악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세련된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웰메이드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NCT127은 오는 24일 미국 뉴저지를 시작으로 애틀랜타, 마이애미, 댈러스,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토론토 등 미국과 캐나다 11개 도시에서 12회에 걸쳐 북미 투어를 연다. /연합뉴스



목도리도요

EBS 다큐 ‘수컷들’ 15~16일방송

생명의 번식욕 다룬 2부작...조류 13종 촬영

EBS 1TV는 생명의 번식욕을 다룬 2부작 UHD(초고화질) 자연 다큐멘터리 ‘수컷들’을 오는 15일과 16일 이를에 걸쳐 방송한다고 10일 예고했다. ‘수컷들’은 남미, 중미, 호주, 북유럽 등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독특한 13종의 조류를 통해 암컷에 선택받기 위한 수컷들의 광기와 간절함, 그리고 성(性) 선택이 성스러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치열한 진화의 전장에서 최종 승자로 살아남기 위한 조류 13종의 구애 전략

들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연출을 맡은 손승우 PD는 10일 홍대 프리스타일 이벤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많은 동물 중 조류를 선택한 데 대해 “조류는 가장 복잡하고 화려한 구애방식을 가진 동물로, 잘스 다윈의 역작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30년 전부터 이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장하는 13종의 조류가 모두 국내에서는 한 번도 촬영되지 못

했던 것들”이라며 “이들의 구애 활동을 통해 인간과 닮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광기의 세계’에서는 2인조로 구애 활동을 하며 싱크로나이저처럼 일치된 동작으로 춤을 추는 뉴기니의 큰극락조, 발레리노처럼 춤추는 꼬리 비너극락조, 몸길이 2.5배에 달하는 장식 깃을 가져 안테나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드림극락조, 날개로 타원을 만들어 춤추는 호주의 빅토리아극락조, 몸길이보다 긴 육수를 달고 있는 에콰도르의 우산새, 연극을 하는 스웨덴의 목도리도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부 ‘예술의 탄생’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암컷을 부르는 뉴기니의 검은날부리극락조, ‘웃는 얼굴’ 춤을 추는 어깨걸이극락조, 체조의 마루운동 동작을 하는 에콰도르의 황금날개무희새, 날개로 박수를 치는 방망이날개무희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춤을 추는 코스타리카의 흰턱수염무희새, 마이클잭슨의 문워크 춤을 추는 빨간모자무희새, 암컷에게 보석을 바치는 정자새 등을 다룬다. 제작진은 이번 다큐 제작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 14회 해외촬영을 다녀왔다. 제작진은 스웨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를 방문했고 제작비만 해도 10억원가량이 든 ‘대작’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 스킨들	00 당동명 유치원 10 워터지 뮤직박스 45 탈탈라 뿌우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두다다쿵 40 다문화 고부 열전(재)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박병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콩도령		25 꾸러기 식사교실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00 지식채널e 40 지식의 기쁨(재)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0 생활안전 이야기 45 소방안전 이야기
3	00 TV 쇼 진품명품(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헬로키키즈		00 마사와 곰 15 출동! 슈퍼핑크 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슬플 때 사랑한다(재)	00 로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15 출동! 슈퍼핑크 2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45 명령이다, 비트(재)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토봇 V 15 타오르자마 벵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20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당동명 유치원(재) 15 두다다쿵(재) 30 뽀롱뽀롱 뽀로로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임정 100주년 특집 기억록	00 임시정부 부트를 가다	00 특! 특! 보니 하니 2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45 명령이다, 비트(재)
7	00 KBS 뉴스 7 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50 원손잡이 아내	1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0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00 원더블즈(재) 30 EBS 뉴스 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8	30 비켜라 운명아	20 내가 사랑한 아리랑	3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세상에 이런일이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30 한국기행 50 다큐 시선
10	0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5 숨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 이슈	45 다문화 고부 열전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0 킬빌	10 가로채널	55 EBS 스페이스 공감
12	3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50 한미정상회담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아리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4월 11일 (음력 3월 7일)

<p>子 48년생 기대보다 못한 결과가 아쉽다. 60년생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72년생 공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다. 84년생 믿을 곳은 가족뿐이다.</p> <p>丑 49년생 위신이 추락하니 속이 상한다. 61년생 안될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73년생 약성 댓글에는 무관심이 최선이다. 85년생 다소 억울한 일이 있겠다.</p> <p>寅 50년생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62년생 너무 잘나면 시샘을 받는다. 74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다. 86년생 절대 인정에 끌려 대의를 망각하지 말라.</p> <p>卯 51년생 행운이 발동하는 멋진 날이다. 63년생 일단 살아남아야 복수도 할 수 있다. 75년생 모로 가도 서술만 가면 된다. 87년생 명분 없는 싸움은 접어라.</p> <p>辰 52년생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64년생 못지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6년생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88년생 항상 희망은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p> <p>巳 41년생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53년생 평화는 타협과 공존 속에 있다. 65년생 뒤는 놔 위에 나는 놈이 있다. 77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p>	<p>午 42년생 이웃에게는 절대 모진 말을 하지 말라. 54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66년생 선행을 배뿜면 복을 받는다. 7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p> <p>未 43년생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55년생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가 왔다. 67년생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79년생 시련은 가고 안정이 찾아온다.</p> <p>申 44년생 허세를 부리면 손해를 본다. 56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68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80년생 실력보다 저평가되는 현실이 슬프다.</p> <p>酉 45년생 이상은 높으나 실현되기는 어렵다. 57년생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조심하라. 69년생 지름길은 빠르지만 험난한 법이다. 81년생 한 번만 더 믿어 보자.</p> <p>戌 46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58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70년생 일찍 귀가하라. 82년생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p> <p>亥 47년생 승승장구하는 좋은 날이다. 59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다. 71년생 재물이 들어오고 부부금슬이 좋아지는 날이다. 83년생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른다.</p>
--	--